

5일 Market Index	
코스피 2441.55 (-234.64)	코스닥 691.28 (-88.05)
금리 (연이자율) 2.806 (-0.133)	환율 (원/달러) 1367.10 (-4.10)



코스피 8.77% 폭락 '검은 월요일'... 아시아 증시 패닉

4년만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234p 하락 2441.55 마감
코스닥은 11.3% 하락한 691.28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증시들이 폭락했다. 코스피는 이를 연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검은 금요일'에 이어 '검은 월요일'을 보냈다. <관련기사 3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64포인트(8.77%) 폭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286 포인트(10.8%)까지 떨어지면서 2400선이 깨지는 등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이었던 2일에도 코스피는 3.65% 하락했다. 2거래일 동안 기관은 1조478억원, 외국인은 2조374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만 홀로 3조313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장 초반부터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반 발동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락 폭을 줄이지 못한 채로 장을 마감했다. 양대 시장에 이러한 조치가 동시에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며, 역대 세 번째이다. 먼저 오후 1시 56분에 코스닥 지



코스피가 장중 2400선 아래로 급락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코스피 전광판에 이날 최저치인 2,386.96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수가 8% 넘게 하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고, 이후 오후 2시 14분에 코스피도 서킷브레이커가 발생했다. 이 역시 2020년 3월 19일 이후 최조다.

코스닥시장의 공포감은 역대급이어서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05포인트(11.30%) 급락한 691.28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700선이 깨진 것은 종가 기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573일만이다. 기관이 1188억원, 외국인이 5472억원을 사들였으나 시장의 투매분위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장마감후 1997조

7450억 원으로 하루 만에 약 192조 원이 증발했다. 시총 2000조 원이 깨진 것은 2024년 1월 22일 이후 196일 만이다. 코스닥시장이 시가총액은 338조4265억 원으로 하루 동안 약 43조 원이 날아갔다.

다만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 하락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내릴 확률이 높는데 장기적으로는 90% 확률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폭락했는데, 보유한 주식이 우량주라면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참아보는 것도 좋다"고 제언했다.

이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지역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 도쿄증시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전일 대비 12.40%(4451.28엔) 빠진 3만 1458.42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다. 지수 하락률은 1987년 10월 20일(14.9%) 이후 두 번째로 컸으며, 종가 기준으로 2023년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닛케이지수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단기 정책금리

를 인상한 지난달 31일에 1.49% 상승했지만 지난 1일(-2.49%)과 2일(-5.81%) 급락했다. 3거래일 기준 닛케이지수 성적은 2011년 대지진 당시 이후 최악이다.

일본의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지수도 전장 대비 310.45포인트(12.23%) 하락한 2227.15에 장을 마무리했다. 장중 오사카 증권거래소는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토픽스 선물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기도 했으나 폭락장세를 막기에는 속수 무책이었다. 대만타이완지수 역시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35%(1807.21) 하락한 1만9830.88로 장을 마쳤다. 지수 산출이 시작된 1967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 2거래일만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경기침체 공포에 젖어든 상황으로 언제 어디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주 공급관리협회(ISM)제조업지수, 실업수당청구건수, 7월 7월 소비자·생산물가지수(CPI·PPI), 소매판매, 산업생산 결과를 확인하면서 변화의 트리거를 찾아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원관희 기자 godhe@metroseoul.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5일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함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HBM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SK

“현재에 안주 말고 수익모델 고민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장경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AI(인공지능) 반도체 현안을 직접 챙겼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인공지능) 거품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AI 반도체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5일 SK하이닉스 HBM 생

산 현장을 찾아 “SK하이닉스가 지금은 HBM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내년에 6세대 HBM이 상용화되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차세대 수익 모델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살펴본 HBM 생산라인은 최첨단 후공정 설비가 구축된 생산 시설이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부채 중심 금융시스템 구조 개선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DSR 점진적 확대, 관리체계 강화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총 4959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6.5%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개국 평균(150%)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DSR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75% 총당금을 쌓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금융사는 리스크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

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새출발 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 안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PF, 소상공인부채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연계돼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은 현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총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시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진 /사진 뉴시스
▲민중, 양곡법·한우법·농안법 당론 채택...이숙연 임명동의는 '자율투표'

▲군, 북 미사일 발사대 250대 배치 위협에 “성능 확인 필요”
▲“민주당 vs 조국혁신당”...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레이스 돌입



▲베세도 부활 주도하는 오세훈 “中 늑대외교 탈피해 해빙무드” /사진 뉴시스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

2분기 국내총생산 -0.2% '역성장' OECD 15개국 중 12위 '최하위권'

1분기 고성장 기저효과 크지만
지속적 내수위축도 상당한 영향
리투아니아 0.9%로 1위 차이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 비교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들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앞선 1분기에 성장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지만, 지속되는 내수 위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에 더해 건설투자 지표까지 부진했다. 또 수출 증가 폭마저 둔화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0.2%)하며, 동분기 수치를 발표한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 기준 12위에 처져 있다. 헝가리와 공동 12위로, 한국 밑에 위치한 회원국은 현재 2개국뿐이다.

미국 경제는 0.7% 성장하며 15개국 중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이자

EU 소속인 국가들의 평균은 0.3%로 집계됐다. 리투아니아가 0.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페인(2위·0.8%), 캐나다(4위·0.5%), 체코와 프랑스(공동 5위·0.3%)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멕시코와 벨기에, 이탈리아가 성장률 0.2%, 포르투갈이 0.1%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는 0.0%였다. 이 밖에 한국과 헝가리, 스웨덴, 라트비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총 회원국 수가 38개인 관계로 OECD 평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평균치 하회 가능성이 크다. 향후 38개국 비교 시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5%) 이래 여섯 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제시한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에 비해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1.1%를 나타냈고 설비투자(-2.1%)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출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어난 반면 재화 소비가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자동차)에서 늘어났지만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면서 총합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수출의 경우, 2분기에 0.9%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1.8%)와 지난해 4분기(3.9%)와 비교해 둔화했다.

기저효과와 영향도 성장률을 끌어냈다. 앞선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3%에 달했다. 당시 미국(0.4%)과 EU 평균(0.3%)을 크게 웃돈 바 있다. 이스라엘(3.4%)과 튀르키예(2.4%), 칠레(1.9%) 등은 한국에 앞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상순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앞서 6월호 진단에서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외환보유액 13억 달러 늘었다 외화외평채 신규발행 등 영향

한은, 지난달 말 기준 4135.1억 달러
6월 말 기준 보유액 규모 세계 9위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13억 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5억 1000만 달러로 한달 전보다 13억 달러 증가했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액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다 7월 들어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말 효과 소멸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소했지만 외화외평채 신규발행,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3670억 5000

만 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 5000만 달러) 등이 각각 30억 7000만 달러, 3억 달러 늘었다.

반대로 예치금(223억 5000만 달러)은 20억 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122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3조222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215억 달러)과 스위스(8838억 달러), 인도(6520억 달러), 러시아(5935억 달러), 대만(573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7억 달러), 홍콩(4163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나유리 기자 yu115@

농식품부, 창업규제 철폐... 청년농업인 육성 팔 걷었다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농업법인 범위 전후방사업 확대

정부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이를 통해, 위기에 봉착한 농업 및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혁신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주도하의 기획·참여가 주를 이루는 농정체계 구축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의 단순 생산뿐 아니라 농산업 및 농촌 전반에 걸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 자리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롤스퀘어(Root Square)'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들 아이디어를 비롯해 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롤스퀘어(Root Square)'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 목소리를 정부가 그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

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정책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 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신속한 사업확장을 지원한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용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추가한다. 이로써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0헥타르(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책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R&D·투자로 기술리더십 공고화 해야"

>> 1면 '현재에 안주 말고...'서 계속

SK하이닉스는 이곳에서 지난 3월부터 업계 최고 성능의 AI용 메모리인 5세대 HBM(HBM3E) 8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HBM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

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HBM 생산 라인을 점진한 뒤 과 대표와 송현중 사장, 김주선 사장 등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함께 AI 시대 HBM을 비롯한 D램, 낸드 기술, 제품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AI의 거센 흐름 속에서 SK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면 지속적인 R&D와 효과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사업 환경 속에서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해외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3만2000명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묵묵한 노력의 성과로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AI를 이끄는 일류반도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플랫폼종사자 88.3만명... 11.5% 증가

고용부, 전업형 줄어들고 부업형 늘어
IT서비스 141%, 전문서비스 69% ↑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운전 등 업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업형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부업형 종사자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는 2021년 66만1000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플랫폼 일자리 시작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히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규모)

(단위: 천명, %) /자료=고용노동부

직종	'21년	'22년	'23년	증감률('22)
배달운전	502	513	485	Δ5.5
전문서비스(교육상담 등)	53	85	144	69.4
컴퓨터단순작업(데이터입력 등)	31	57	87	52.6
가사돌봄	28	53	52	Δ1.9
창작활동(디자이너 등)	19	36	50	38.9
IT 서비스(SW개발 등)	14	17	41	141.2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사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1만명)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년 25.8%(20.5만명)에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업형의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57.7%→55.6%)한 반면, 부업형(21.1%→21.8%)과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빛투족 '반대매매' 쏟아지나...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

국내 증시 급락에 증거금 부족 반대매매 증가시 지수 하방 압력 "경기침체 우려 등 변동성 확대"

국내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빛투(빛내서 투자)족'들의 반대매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매매가 급증할 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89억92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6월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인 67억1000만원보다 약 20억원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 22일에는 110억 5800만원까지 오르면서 한 달여 만에 100억원대를 넘어섰고, 다음날인 23일에는 141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반대매매가 100억원을 넘긴 날은 단 9거래일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0.53% 하락했다. 이날도 국내 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8%대 하락하면서 나란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

를 일시정지하는 제도다. 이날 발동한 1단계에서는 모든 거래가 20분간 중단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입을 위해 증권사에 돈을 빌린 후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

을 매입한다. 이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빛투'가 증가할수록 주식시장 내 반대매매가 확산될 리스크도 높아진다. 지금처럼 증시가 폭락하는 시점에서는 지수 하락이 반대매매를 발생시키고, 반대매매로 하락 폭이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증시 폭락 후 반대매매, 투매 등이 나오면서 하방이 더욱 자극됐다"면서도 "미국의 경기침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급락했는데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거의 마지막 시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장기간 20조원대를 머물렀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으로, 잔고가 늘수록 '빛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초(1월

2일 기준) 17조537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융자잔고는 이달 1일 기준 19조516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는 7거래일 내내 20조원대를 유지하기도 했다. 1일 기준 신용융자잔액은 코스피는 10조9250억원, 코스닥은 8조590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반대매매 공포감도 커질 전망이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낮아진 시장 눈높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다시 빠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며 "당분간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안전자산 찾는 투자자... 금 가격 상승세

일주일새 금 가격 130달러 ↑ 시장선 추가적인 상승 전망도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격화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일 온스당 2469.8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온스당 2522.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직전 최고치(지난 1일 온스당 2506.60달러)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금 가격은 2500달러를 사상 최초로 돌파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130달러 이상 상승했다.

지난 1월2일 2073.4달러에서 출발한 금값은 올해 21.6%(449.10달러) 올랐다.

금 가격 상승 배경은 크게 3가지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전쟁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 했지만, 9월 이후 통화정책 전환(피벗)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금 수요가 높아졌다.

금 가격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금

리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이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규제 완화, 세금 인하 정책 등의 공약이 세계 정치·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이 헤지(위험회피)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가치는 10% 넘게 하락했지만 금 현물 가격은 50%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중동지역 위기감 고조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키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됐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적 보복'을 지시하는 등 5차중동 전쟁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확대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투자처이다. 전쟁 이슈들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치의 변동이 심한 주식이나 채권, 통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값 상승 원인은 불확실한 금융시장보다 안전자산 투자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금값이 고점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어 추가적 상승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상황별 대응 계획)

이른바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에 따른 전 세계 금융시장 동요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상시 모니터링을 주문하고 정부-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재부는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열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증가 대비 8% 넘게 주저앉은 상황이 1분간 지속되면서 주식 거래를 20분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앞서 오전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일시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미국발 침체 우려에 더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까지 부상함에 따라,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 및 관계기관 회의 등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아시아에서는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된 직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역대 3번째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동반 발동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5일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대폭락장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8%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Sidecar)'에 이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까지 동반 발동됐다. 국내 양대 지수를 대상으로 두 조치가 동시 발동한 것은 약 4년 5개월 만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00분 20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오후 1시5분19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는 시

장의 초기 변동성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증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하지만 양대 증시는 사이드카 발동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이 8% 넘게 내리고,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코스피도 8% 이상 추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양대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이 급락할 때보다 강력하게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발동되는데 서킷브레이커 1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1단계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3단계는 전 거래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고 3단계에 이르면 발동시점 기준 모든 주

식거래가 종료된다.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이날 코스닥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오후 2시 16분, 오후 2시 34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서킷브레이커 해제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고 이후 정상적으로 체결이 이뤄진다. 제도가 도입된 후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였고, 코스닥에서는 열 번째였다.

이렇게 코스닥·코스피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것은 역대 3 번째다. 최초는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 직후 발동됐고, 두 번째 발동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발동된 바 있다. /하정윤 기자 zelkova@

스마트폰 경쟁 뒤흔친 애플... 삼성, 갤럭시S24 선공개로 주도권 확보

삼성,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갤S24 시리즈, 전년비 두 자릿수 ↑
하반기 프리미엄 전략 수익성 강화

애플, 매출 857억8000만 달러 달성
AI기능 탑재 10월 연기, 안전성 우려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2분기 성적이 박빙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앞으로 인공지능(AI)폴더블폰을 장악하는 회사가 전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애플은 AI시장에서 삼성에 비해 1년 가량 뒤쳐지고 있다. 올해 공개 예정이었던 AI 스마트폰 출시를 미루면서 AI폴더블폰 출시도 연기될 상황이다. 이에 올해 AI스마트폰을 먼저 공개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애플, 시장 전망치 상회... 판매수는 아이폰이 앞질러

지난 1일(현지시간) 애플은 올해 2분기(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857억8000만 달러(약 117조9904억원), 주당 순이익은 1.40달러(약 1925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5% 주당 순이익은 11%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아이폰 매출은 393억달



삼성전자 서초사옥.

리(약 54조728억원)로 전년 대비 39% 7000만달러에서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388억1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삼성전자는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회사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조40004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62.29%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X부문은 2분기 매출 27조3800억원, 영업이익 2조2300억원을 달성했다. 스마트폰 시장 비수기가 지속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모델이 출시된 1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있는 애플 로고. /뉴시스

있는 갤럭시 S24 시리즈는 2분기와 상반기 출하량·매출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반면 올해 2분기 스마트폰 ASP(평균판매단가)와 판매수는 아이폰이 앞질렀다. 먼저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상위 10개 가운데 상위 1,2,3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차지했으며 뒤이어 삼성의 중저가폰인 갤럭시 A15가 차지했다.

ASP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의 ASP는 글로벌 평균인 325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859달러(한화 약 117만원)로 집계된 반면, 삼성전자의 2분기 ASP는 279달러(한화 약 38만원)에 그쳤다.

◆애플 아이폰 출시 연기, 삼성 시장 장악 가능성 ↑

다만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을 먼저 공개하면서 전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애플의 AI 시장 대응은 삼성에 비해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세계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S24'를 출시하며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2분기 실적발표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5400만대였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인 5300만대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우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문 상무는 "갤럭시 S24 시리즈는 2분기와 상반기 출하량과 매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S24가 출시됐던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6000만대였다.

반면 애플은 AI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연기한 상황이다. 애플은 오는 9월 AI기능을 탑재한 아이폰16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AI기능 탑재를 10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AI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출시 일정을 연기했다"며 "AI에 대한 큰 도박을 원활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자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AI 폴더블폰 갤럭시Z6, 판매량 30% 증가 전망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은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AI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6·플립6 시리즈의 판매가 하반기는 접어들어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 Z 폴드6·플립6 판매량이 전작 대비 3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신작 판매 목표치를 전작 대비 10% 이상으로 잡았다. 전작 판매량은 900만 대 가량으로, 폴더블 출시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대 판매를 넘어섰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프리미엄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중저가폰 이미지를 벗고 ASP를 높이기 위한 계산으로 분석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3분기에는 신규 갤럭시 Z6 시리즈 출시에 따른 MX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노 연구원은 3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5600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헬스&웰니스 투자 결실... 롯데웰푸드, 글로벌 강화로 2분기 실적 개선

매출 1조442억, 전년비 0.3% 상승
빙과 판매 증가 등에 영업 이익 개선
식자재 채널 합리화 등 매출감소 방어

롯데웰푸드가 미래 성장동력인 헬스&웰니스 카테고리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사업 강화를 통해 2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5일 롯데웰푸드의 IR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적(연결 기준)은 매출액 1조442억원으로 전년비 0.3%(36억원)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은 633억원으로 전년비 30.3%(147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액 1조9953억원으로 전년비 0.2%(50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006억원으로 전년비 49.8%(335억원) 증가했다.

회사는 국내 사업이 가공 유지 고원가 재고 소진과 빙과 성수기 판매량 증가로 영업 이익 개선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빙과 사업에서 Okkal 아이스바, 졸음번쩍껌, 이지프로틴 등의 헬스&웰니스 신제품 출시 및 판매로 매출을 확대해 식자재 채널 합리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방어했다.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Okkal 아이스바'는 출시 후 현재까지 3000만개 가 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제로(ZERO)'도 상반기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확장했다. 2분기 빙과 사업 매출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신장했다. 졸음번쩍껌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2% 성장했다.

롯데웰푸드는 헬스&웰니스 영역에서 다채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브랜드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건강 및 환경 지향적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00% 식물성 디저트 브랜드 '조이(Joee)'를 지난 6월 선보인 것.

기존 브랜드도 꾸준히 라인업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제로' 브랜드의 경우 2022년 출시 후 올해까지 건과 8종, 빙과 7종 등 총 15종으로 종류를 늘려 선택권을 넓혔다. 단백질 전문 브랜드 '이지프로틴'도 도링크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단백질바, 스낵으로 카테고리 확장을 하고, 2분기에는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바까지 영역을 넓혔다. 두 브랜드 모두 소비자 수요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디저트 영역뿐만 아니라 육가공 등 식품 사업에서도 헬스&웰니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육가공 영역에서는 나트륨 저감 제품인 '로스팜97라이트', '의성마늘 순한 시리즈' 등을 선보인 바 있다.

롯데웰푸드의 국내 매출 중 헬스&웰니스 카테고리 매출 비중은 지난해 9%였으며 올해는 약 1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측은 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20% 이상의 국내 매출 비중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에서도 인도 지역 매출 확대와 주요 해외법인 원부자재 단가 안정화, 생산성 증가로 수익성 개선(매출 5.6% 증가, 영업이익 37.6% 증가)을 이뤄냈다. 인도 건과의 경우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롯데 초코파이 3라인의

안정화 등으로 공급이 늘어 매출이 지속 성장했다. 빙과는 기상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건과와 빙과를 합친 인도 사업의 2분기 매출은 총 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성장했다. 롯데웰푸드는 최근 인도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건과·빙과 두 자회사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출 매출과 수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 65.2% 증가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대표 브랜드인 빼빼로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빼빼로의 수출 매출은 약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신장해 국내 매출을 처음으로 앞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케이캡' 덕 톡톡... HK이노엔, 매출 '1조 클럽' 눈앞

2분기 매출 2193억, 영업이익 243억
지난 동기 대비 각각 7.3%, 58.9% ↑
케이캡, 지난해 누적 처방액 1582억

HK이노엔이 국내 제약 업계 '1조 클럽' 입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5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HK이노엔의 매출은 2193억원, 영업이익은 243억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무려 58.9% 증가했다. 올해 1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41.1% 증가하는 등 실적

성장이 지속돼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4319억원에 이른다. HK이노엔이 올해 매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따르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HK이노엔은 올해 2분기 전문의약품 사업에서 매출 1938억원, 영업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으나 영업이익의 경우 50.3%나 큰 폭으로 성장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HK이노엔의 신약인 '케이캡'은 올해 2분기 467억원의 원외 처방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

했다. 케이캡의 올해 상반기 누적 처방액은 919억원에 이른다. 케이캡이 지난 2023년 누적 처방액 158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국내 소화성질환용제 시장에서 P-CAB 계열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캡 처방 실적도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HK이노엔 측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HK이노엔

의 설명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소화성질환용제 시장 규모는 6555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P-CAB 계열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상반기 11.4%, 2023년 상반기 16.1%, 2024년 상반기 19.9% 등으로 확대됐다. 해당 시장에서 케이캡은

지난 2019년 출시 후 4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한 바 있다.

HK이노엔은 케이캡 글로벌 사업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케이캡은 현재 해외 45개국에 완제품 수출 또는 기술 수출 형태로 진출해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등으로 영향력을 넓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野, 이달 첫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與 표결 불참

추경호 “지난 국회서 폐기·정쟁법안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적 논의해야”
이해식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경제계 “尹 거부권 행사해달라”
노동 전문가 “與·재계, 선동 멈춰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막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

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가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후 5분 자유 발언에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며 “예정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다면 탄핵에 지름길로 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친한체제’ 구축 전념... 與 장악력 강화 시동

김종혁·한지아·신지호·정성국 선임 김상훈 선임 정책위원장 만장일치 추인 당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하 비서실장, 한 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당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 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요직인 지명직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에 친한계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 정성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선임한 것. 광규택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한 대표를 돕거나 인연

이 있던 사람으로 채워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대표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 요구 당시 사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구성원 중 유일

한 원외인사이며 현재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 인선으로 국민의힘 최고위는 친한계(한동훈·김상훈·진중오·장동혁·김종혁)가 친윤석열계(추경호·김민진·인요한·김재원)에 앞서는 구조가 됐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으며, 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대비해 제일 먼저 영입한 ‘1호 인재’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

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훈 선임 정책위원장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또, 한 대표는 당 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한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당 내 경험이 많은 중진들과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당내 장악력 강화 시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6선)과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했으며, 오는 6일엔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 등과의 오찬을 갖고, 오는 8일에는 4선 이상의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백태홍 기자

野 호남 경선 투표율 20% 초반대 ‘저조’

경쟁구도 미형성에 동력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경선 온라인 투표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낮아지면서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4일 각각 25.29%와 23.17%를 기록했다. 3일 열린 전북 지역 경선 순회에선 20.28%로 더 낮았다. 이는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경북 지역 경선(52.23%)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의 전체 누적 투표율은 26.47%로, 충북 지역 순회

경선 이후 종합 집계된 31.94%보다 하락했다.

한준호·민형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약진하고 김민석 후보가 최고위원 1위로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최고위원 선거 관세에는 경쟁이 불붙었지만, 호남이 텃밭 지역임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 “호남 경선 투표 참여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투표율에 대

해 이재명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아 지지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하락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이날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연임을 하는 게 전당대회의 핵심인데, 대표 경선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니(당원들의 투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호남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이 약 83%가 나왔으니 다른 지역에서 90% 이상 나온 것에 비하면 저조하다”며 “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상대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니 투표를 포기한 층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4주 만에 떨어져

긍정 32.8%, 부정 6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주만에 하락해 32.8%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63.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이 같이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2.8%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경기, 대구·경북, 여성, 50대, 학

생, 농림어업, 무직/은퇴/기타에서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가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63.2%로 집계됐다.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남성, 30대, 사무/관리/전문직에서 지난주 대비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의힘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5%,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상승한 36.3%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태홍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 회복세 건설사,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주요 건설사 상반기 실적 악화
고금리, 원가율 개선 등 영향
“주택사업 추가비용, 지나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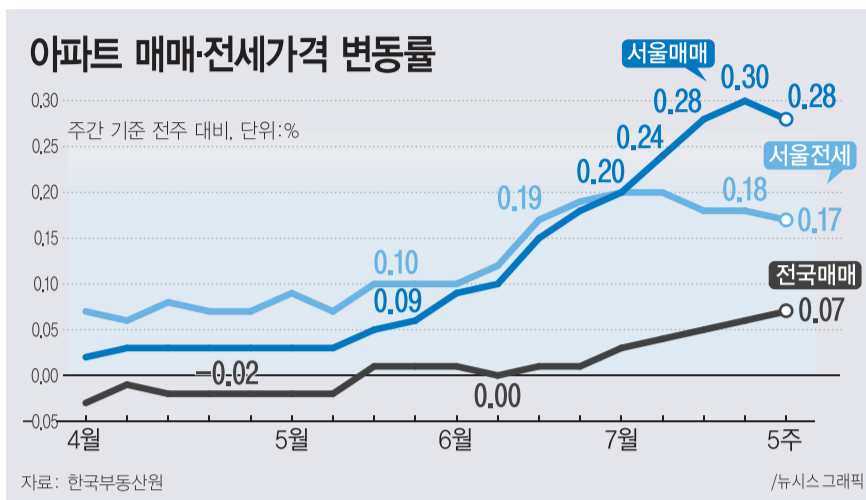
주요 건설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악화됐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주요 5개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2조 3032억원, 영업이익은 1조 495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 17조 1665억원, 영업이익 39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1%, 0.3% 증가했다. 주택부문의 원가부담 확대와 함께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며 선방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 10조 4990억원, 영업이익 62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2%, 3% 증가했다. 매출은 연간 시장 예상치인 17조 9000억원 대비 60% 수준이다.

GS건설의 상반기 실적은 매출이 6조 36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1642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갑갑사고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었지만 원가율 개선도 한 몫을 했다.

대우건설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 5조 3088억원, 영업이익이 2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 44.3%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5일 “고금리와 원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수익성이 악화됐다”면서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4.1%, 당기순이익률 3.5%로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의 상반기 실적은 매출 3조 9608억원, 영업이익 935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7%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42%나 급감하며 당초 예

상보다 부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주택사업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자회사인 DL건설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했다”며 “일부 현장들의 원가율 조정과 대손을 반영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아쉬운 실적과, GS건설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의 변수는 모두 ‘주택사업 이익률’이었다”며 “건설업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인이었던 국내 주택사업에서의 추가 비용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상수가 아닌 지나간 이슈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점차 공급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베일리·메이플자이... 아파트 네이밍 경쟁

“이름만으로 단지 장점, 성격 등 표현”

최근 아파트에 독특한 이름을 붙이는 곳이 크게 늘었다.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고급스런 브랜드가 관심을 받아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래미안 베일리’는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명과 베일리(Bailey)라는 단어를 결합했다. 베일리는 중세 시대 영주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의 중심부를 의미한다.

GS건설의 ‘메이플자이’는 캐나다의 메이플 국립공원을 컨셉트로 정했다. 단지 내 공원을 꾸며서 만든다는 것에 착안해 단지명이 붙여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네이밍으로 호기심 자극은 물론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단지의 장점과 입지, 성격 등을 표현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2년 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아파트 명칭이 어렵고 복잡해 방문 시 헷갈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을 쓸 때 다 외워서 쓰기 어려워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네이밍 경쟁은 치열해져 지명을 집값이 높은 곳으로 바

뀌 표기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와 ‘신목동 파라곤’은 신월동에 위치함에도 학군지로 유명한 ‘목동’으로 탈바꿈 했다.

2025년 입주 예정인 대전 서구 ‘둔산 더샵엘리트’도 용문동에 위치하지만 집값이 높은 둔산동을 아파트 이름에 붙였다.

반면 아파트 명칭을 간결하게 지은 곳도 있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대전 중구 문화동 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인 ‘문화자이SK뷰’는 산이 바로 앞에 있다. 따라서 ‘포레’ ‘라포레’와 같은 외국어를 넣을지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결하게 지을지 약 3개월 간 조합원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명과 두 개 시공사 브랜드만 넣은 이름이 채택됐다. 아파트 명칭보다 조경과 주변 부대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김희경 8구역 조합장은 “‘센트럴’ 같은 단어를 남발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억하기도 어렵고 특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헷갈려한다”며 “요즘은 어디가 좋은지 아는데 굳이 어려운 영어를 넣어 길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카드 News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자동차시장 공략

‘아스터오토’ 합작법인 출범

신한카드가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 법인인 신한파이낸스가 현지 중고차 판매 딜러사인 ‘아스터오토(Aster Auto)’와 합작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스터오토가 카자흐스탄 전역에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딜러 매장을 26곳과 영업 네트워크 86곳 소속 영업사원 등이다. 고객과의 접점을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카자흐스탄 3대 자동차 딜러사인 ▲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이 신한 파이낸스와 아스터오토 합작 법인 출범식 비전 그래피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아스타나 모터스 ▲알루르 ▲오르비스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자동차 대출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플랫폼 등에서 기술 협력을 단행한다.

삼성카드, ‘아멕스 블루’ 적립혜택 강화

삼성카드가 ‘아멕스 블루’ 이용객을 위해 해외적립 혜택을 강화했다.

삼성카드는 아멕스 블루 카드의 혜택을 보장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5%로 책정한 멤버십리워드 해외 결제 적립률을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멤버십리워드 월 적립 한도도

한 쇼핑·해외 통합 3만 포인트에서 6만 포인트로 높였다.

카드 혜택 업그레이드를 기념해 캐시백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아멕스 블루 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1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30만원 이상 결제 시 4만원을 돌려준다.

비씨카드, ‘페이북’ 홍보영상 제작·공개

비씨카드가 KPGA 김가영 프로와 함께 ‘페이북’ 홍보에 나섰다.

비씨카드는 김가영 프로와 ‘페이북 머니 잘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했다. ▲1편

·페이북 머니 소개 ▲2편·페이북 머니 결제편 ▲3편·페이북 머니 송금 및 충전 순이다. 비씨카드 직원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김 프로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김정산 기자

Sh수협은행, 주중 차기 은행장 모집 일정 결정

강신숙 號 수익성 개선 합격점... 연임 여부 촉각

금융권, 강 행장 연임 관측 우세
일각선 새 인물 교체 가능성 제기

강신숙 Sh수협은행장(사진)의 임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

에 눈길이 쏠린다. 이달 수협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선발을 논의한다. 연임 가능성과 새 인물 등장 가능성이 상존하고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월 17일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강 행장은 지난 1979년 수협중앙회 입회 후 사업본부장과 상임이사 등 주요 내부 요직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수협은행 최초 여성 행장으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수협은행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지난 2022년 진행된 수협은행장 공개모집에선 5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치른 끝에 강 행장이 최종 선발됐다. ▲은행장 후보자 지원 ▲행장 후보추천위원회 면접 ▲최종 후보자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쳤다.

수협은행은 오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모집 일정을 결정한다. 이사회에서는 차기 은행장 후보자를 평



가할행장후보추천위원 명단도 확정할 예정이다. 행추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한다. 5명중 2명은 수협중앙회가 선정하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3곳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행추위원은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등 3명으로 추려진다. 3명 모두 현재 수협은행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은행장에 오르기 위해선 행추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5명중 4명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강 행장의 연임은 금융권에서도 관심사다. 강 행장 취임 한달 전인 2022년 10월 수협중앙회가 21년 만에 공직자금 7574억원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협은행의 금융지주 전환을 시사하면서 자회사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

금융권에서는 강 행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 행장으로 금

용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취임 이후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다. 올 상반기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57억원이다. 전년 대비 1% 감소한 회복세다. 지난해 수협은행이 연간 10.9% 성장한 2177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점을 고려하면 합격점이란 평가다.

강 행장은 업계에서 ‘영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취임 이후에는 신용카드와 외환업무를 강화하면서 비이자의 창구 확대에 집중했다. 지난 2월에는 외환사업 강화를 위해 ‘FX-리더스’를 출범했고 이후 다음달인 3월에는 낚시 애호가를 위한 ‘탁씨(樂SEA) 카드’를 출시했다.

강 행장은 수협은행의 금융지주 전환이란 숙원과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연임 사례가 드물어 새 인물 등장 가능성도 제기한다. 역대 수협은행장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장병구 전 수협은행장 단 한 명뿐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장 같은 요직 인사의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평가한다”며 “숙원 과제를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양궁 전 종목 금메달 석권 '쾌거'

“정의선 회장, 좋은 결과에 가장 큰 도움 준 분”

〈현대차그룹〉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을 마치고 대표팀 선수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대한민국 양궁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유종의미를 거뒀다.

양궁 한국 대표팀은 양궁 5개 종목 금메달을 포함해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휩쓸며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16년 리우대회에서도 전종목을 석권했지만 당시 종목이 4개(남녀단체, 남녀개인)였다. 양궁은 도쿄대회부터 혼성 단체전이 추가돼 5개 종목이 됐고, 한국양궁은 파리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5개 종목을 석권했다. 이같은 기록은 선수 개개인과 코치진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대한양궁협회장 겸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양궁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 정의선 회장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 이끌어

정 회장은 파리 올림픽을 위해 개막 이전부터 모든 준비 과정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궁협회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대통령 프랑스 순방길에도 바쁜 일정을 쫓아 파리 현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한 것은 물론 개막식 전부터 현지에 미리 도착해 우리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과 휴게공간, 식사, 컨디션 등 준비 상황을 직접 챙겼다.

또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올림픽 양궁 모든 주요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양궁협회 관계자, 프랑스 현지 교민들과 선수들을 직접 응원했다.

또 시상식 때마다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 회장은 정신적 멘토 역할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단체전 결승 상대가 개최국 프랑스로 정해지자 정 회장은 선수들에게 "홈팀이 결승전 상대인데 상대팀 응원이 많은 건 당연하지 않겠냐"며 "주눅 들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자. 우리 선수들 실력이 더 뛰어나니 집중력만 유지하자"며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경제사절단 일정 중 佛 상황 점검 전용 훈련장 등 준비상황 직접 챙겨 선수들 정신적 멘토 역할도 적극

파리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 건설 현지음향 등 적용해 모의대회 실시 변수 대응 위한 환경적응 훈련 시행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한 후 임시현 선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의선 회장님이다. 정의선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회장님은 저희한테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해주셨고 격려도 많이 받았"이라며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실제 파리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정 회장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임시현, 김제덕, 김우진 선수 등이 여자 단체, 남자 단체, 혼성 단체, 여자 개인, 남자 개인 금메달을 직접 걸어들었다. 앞서 리우올림픽 때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정 회장을 행개하기도 했다.

◆ 현대차그룹의 맞춤형 지원 눈길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40년간 한국 양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정의선 회장이 양궁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대한양궁협회를 연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 차원의 맞춤형 지원도 스포츠계에서는 이미 정평 나 있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양궁협회와 함께 전방위 맞춤형 지원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파리 올림픽 양궁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인천선수촌에 건설했고, 예상되는 현지 음향과 방송 환경 등을 적용해 모의대회를 준비했다. 아울러 전북현대모터스와 협의해 전북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진행한 것은 물론 파리의 센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라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 남한강변에서 환경적응 훈련도 시행하며 주춧돌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전용훈련장과는 별도로 경기장에서 약 300m 거리에 선수단 휴게공간을 마련해 시합과 연습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기간 선

수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동행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양궁협회와 기술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지원해 왔다.

차 연구개발 역량 활용 기술 지원 경기감각 향상 위한 훈련용 슈팅로봇 3D 프린터로 '맞춤형 그림' 제작

양궁협회와 투명한 운영시스템 코치진 역시 공채로 공정하게 선발 지속적으로 후원 이어나갈 예정

또 현대차그룹은 선수들과 코치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수와 일대일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을 향상시키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야외 훈련용 다중카메라' ▲어디에서든 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활 점검 장비'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방각 모자'를 도입했다.

또 ▲3D 프린터로 선수의 손에 최적화해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림' ▲비접

촉 방식으로 선수들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선수들의 긴장도를 파악하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 ▲최상 품질의 화살을 선별하는 '고정밀 슈팅머신' 등을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한편 현대차그룹과 양궁협회의 투명한 운영시스템도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 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체계적인 지원은 하되,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선수단 선발이나 협회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명성이나 과거 성적보다는 현재의 성적으로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코치진 역시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0년을 넘어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으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양궁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선수들이 부담도 컸을 텐데 잘해줬다"며 "앞으로 본인들의 기량을 살려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현장에 갈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기록해 '승리 요정'이라는 말도 있다. 이에 정 회장은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물어가고 있고,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일주일 새 가정용 에어컨 판매량 50% 늘어

무풍에어컨, 지난달 판매 80% 차지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 다양한 기능

폭염이 본격 시작되며 AI(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가정용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자사 가정용 에어컨 판매량이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판매량도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달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은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5%, 일반 무풍 에어컨은 전년 대비 약 10% 이상 판매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풍에어컨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판매된 에어컨 가운데 80%가 무풍에어컨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전체 라인업에 무풍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의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는 전 모델이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했으며, 스마트싱스(SmartThings) AI 절약 모드로 상황별 맞춤 절전이 가능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빅스비를 적용해 리모컨 없이 음성 명령으로 에어컨의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에어컨을 켜고 끄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간단한 음성 제어는 에어컨 기기 자체에서 지원돼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움직임 인지에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하는 AI 기능으로 한층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 시간 이후 절전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끄는 '부재 절전'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건조시키는 '부재 건조'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주항공, 캐릭터 마케팅으로 MZ 공략

'제코' 활용 배경화면 등 제작

제주항공이 MZ세대를 겨냥해 캐릭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제코(JEJU+ECO)'를 활용한 배경화면과 여행안전 행운카드 이미지 등 디지털 기획 상품을 제작해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등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제코'는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는 국제 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소재로 제작된 제주항공 자체 캐릭터다. 이번에 제작한 '제코' 디지털 기획 상품은 PC·태블릿·워치 등의 배경화면과



제주항공의 디지털 기획 상품 모습. /제주항공

MZ세대 인기 아이템인 행운카드도 구성돼 있다.

디지털 배경화면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등 신규 취항지를 즐기는 제코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혈당관리 스마트하게... 가전·헬스케어업계, 기술경쟁 치열

삼성전자 비침습적 측정 상용화 연구
쿠쿠전자 곡물 당 저하 밥솥 판매
카카오헬스케어 '파스타' 앱 서비스

'저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가전기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행이 번진 건 MZ 세대 사이에서 마라탕, 탕후루 같은 '고자극' 음식이 유행한 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거나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제로 칼로리' 열풍에 이어 '저속노화' 식단까지 등장하면서 혈당 관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혈당 관리를 돕는 다양한 가전기와 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GM)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CGM 기기로 혈당 변화가 없거나 급격한 음식을 찾아 체중 감량에 도움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 4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혈당 관리 솔루션 '파스타' 특별 팝업 스토어를 선보였다. /카카오헬스케어

받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채혈 없이 동전 만한 크기의 센서를 피부에 부착해 혈당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기기다. 기존 당뇨병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당뇨가 아닌 이들도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에서 AI 기반 혈당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파스타'를 지난 2월 출시했다.

파스타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쉽

게 로그인해 CGM 센서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혈당 데이터를 제공받아 기록·관리할 수 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나타나면 안정 범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기에서 AI 기반 가이드도 제공한다. 음식을 앱 내 '푸드샷'으로 촬영하면 음식 종류, 영양소, 열량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식단을 관리할 수 있으며, 운동, 인슐린, 복약 등도 기록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신제품 출시 전 혈당 측정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를 함께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



쿠쿠전자 '트윈프레스 마스터세프 저당 밥솥'. /쿠쿠전자

으나, 지난달 공개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에는 혈당 측정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당뇨병 치료의 난제로 꼽혀온 비침습적 혈당 측정 기술을 상용화하는 연구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피를 뽑지 않고도 레이저 빛을 이용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라만 분광법'을 적용했는데, 이 기술을 갤럭시 링, 워치 등 기기에 탑재해 각국의 까다로운 의료 규제를 통과하기엔 현실적 장벽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쿠쿠전자는 혈당 관리를 위해 쌀과 같은 곡물의 당 성분을 줄여주는 '저당 밥솥'을 판매하고 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저혈당 식단을 위해서는 당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고혈당 음식 섭취를 주의해야 하지만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쿠쿠전자가 특허 출원한 기술로 쌀 자체의 당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물로 쌀 속 전분을 씻어내는 당질 저감 기술력이 적용해 일반 백미의 당질을 최대 33.6% 줄이면서도 맛있는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당밥솥 밥을 섭취하면 일반 밥을 섭취할 때보다 식후 두 시간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022년 4월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저당밥 섭취와 관련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당밥을 섭취했을 때 혈당 곡선이 일반밥을 섭취했을 때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이라크 초중량물 운송 프로젝트 성공

268종 110만t 규모 운송
"한국의 물류 국격 높일 것"

CJ대한통운이 정교한 하중 분산 기술을 기반으로 이라크 초중량물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프로젝트 물류 분야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이라크에서 총 무게 110만톤(t) 규모의 중량물들을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끝냈다고 5일 밝혔다. 프로젝트 물류는 사회기반시설 설치, 생산시설물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사 기간에 맞춰 운송하는 물류를 말한다.

CJ ICM은 이라크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석유정제시설, 건설자재 등 대규모 설비들의 물류를 수행했다. 이라크 움 카스르(Umm Qasr)항에 하역된 기자재들을 대상으로 항만보관 및 통관을 진행하고 항에서 약 95km 떨어진 바스라(Basra)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이라크에서 총 무게 110만톤 규모의 중량물들을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라크 움 카스르 항에서 초중량물을 운송하고 있다. /CJ대한통운

h) 지역 인근의 공사현장까지 운송했다. 운송 목록에는 길이 최대 84m, 무게 50t에서 890t에 달하는 268개의 다양한 종류의 중량물들이 포함됐다.

이라크 프로젝트 물류 성공 배경에는 CJ ICM의 독보적인 '엔지니어링(Engineering)' 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이 기술은 화물, 기후, 지형 특성에 맞춰 투입해야 할 운송장비, 고박장치,

전문인력 등 세부 계획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물의 하중을 정교하게 분산시켜 차량 전복, 화물 파손 등의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도착 예정일을 준수함으로써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이라크는 사막지형으로 인해 지반이 약한 곳과 비포장도로가 많고 4~6월에는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어 중량물 운

송 시 더욱 정교한 하중 분산이 필요하다. 이에 CJ ICM은 특수운송장비 SPMT(Self-Propelled Modular Trailer) 자체 추진 모듈 트레일러를 운송기간 동안 총 950대를 투입했다. 이 장비는 레고처럼 전면, 후면, 측면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어 화물의 체적에 따라 적재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고 화물의 하중도 분산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화물의 체적을 고려해 운송에 걸림돌이 되는 교량, 신호등, 표지판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 전력선을 지하화하는 등 전문적인 토목 공사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사전에 현지 정부로부터 특별 운송허가를 받아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량물 운송 전문가, 경찰 호위대, 토목기술자 등 총 263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CJ대한통운 장영호 IFS본부장은 "초격차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K-방산, 원전, 프로젝트 물류 분야의 선도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물류 국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SIGIR 2024' 우수 논문상

SK텔레콤(SKT)의 AI 기술 연구가 세계적 권위 학회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SKT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정보 검색 분야 세계적 권위 학회인 'SIGIR 2024'에서 자체 개발 추천 모델 알고리즘 연구가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SKT의 '원 모델(One Model) 버전 2.0'에 관한 연구다.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의 데이터가 시너지를 내 추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 논문은 해당 알고리즘의 참신성, 상용 배포 실증성, 방대한 실험을 통한 결과의 신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접수 논문 중 상위 0.6%의 논문에게만 수여되는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에이스침대
상반기 침대 트렌드 발표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에이스 웨딩 멤버스'를 통해 침대를 구매한 예비부부 고객 5976명을 대상으로 구매 트렌드를 분석, 5일 내놨다.

조사 결과 예비부부들의 침대 구매 경향을 살펴보면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격대로 살펴보면 650만대 이상 제품 비중이 13.1%에서 17%로, 750만원대 이상 제품 비중이 4.5%에서 6.3%로, 850만~1000만원대 제품이 3.5%에서 4.2%로 각각 증가했다.

침대 프레임 역시 아늑한 휴식에 초점이 맞춰진 호텔식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김승호 기자

SIMPAC그룹, 브라질 합작법인 설립 추진... 폐로실리콘 생산

리마그룹 2000만달러 투자 협약 체결

국내 최대 합금철 제조기업 중 하나인 SIMPAC그룹이 브라질 굴지의 실리콘 합금 제조업체 리마그룹(RIMA Industrial S.A.)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SIMPAC그룹은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리마그룹과 저탄소 고순도 폐로실

리콘 공동생산을 위한 2000만 달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최진식 SIMPAC 회장은 중견련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SIMPAC은 합작법인 실브라코(SILBRAKOR)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50%를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 매달 최소 2000톤의 저탄소 고순도 폐로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리마그룹은 브라질 실리콘 합금 생산·판매 분야의 선두 주자로, 1000만 달

리의 현물 투자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다.

국내 최대 산업기계 제조사인 SIMPAC은 2019년 포스코엔텍의 폐로실리콘 분야를 인수하면서 합금철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현재 국내 유일의 고순도 폐로실리콘 제조업체로,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을 통해 최고 등급의 저탄소 고순도 폐로실리콘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오른쪽)이 히카르도 비친틴(Mr. Ricardo A. Vicentin) 리마그룹 회장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우리투자증권 “10년내 자기자본 5조... ‘초대형 IB’로 도약”

TPE타워서 출범 후 첫 간담회

계열사 공동펀드 활용 PF 투자
향후 2~3년 내 2차 M&A 추진
2028년까지 운용자산 15조 목표

우리투자증권이 2조원 규모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5일 서울 영등포구 TPE타워에서 개최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청사진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5년 차에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 대표는 “계열사 공동펀드를 활용해 IB 영업에 집중해 이른 시일 내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그룹이 10년 만에 가지게 되는 증권사로서 자본시장 내에서 우리금융그룹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주도하는 핵심 계열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투자증권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E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진수 경영기획 본부장(상우), 이위한 리스크관리 부문장(전우),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양완규 투자은행(IB) 부문 부사장, 박기웅 세일즈엔트레이딩(S&T) 부문 부사장, 심기우 리테일 부문 부사장. /손진영 기자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기업과 개인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춘 초대형 IB’라는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 ▲IB ▲S&T ▲리테일(주식중개 및 자산관리) 등 각 부문 간 균형 잡힌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남 대표는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해 ‘IB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는 행, 우리벤처파트너스 등 그룹사와 협력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는 ‘기업 생애 주기별 토탈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 포스증권의 리테일 펀드 판매와 우리종합금융의 I

B 업무를 지속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대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조성해 우량PF에 투자하는 등 그룹 차원의 시너지도 창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채 주관 및 인수 기회 선점 ▲PE 초기 자본 투입으로 주관권 확보 ▲실물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등 IB 영업을 활성화해 그룹사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우리투자증권이 발행어음과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운용 가능한 영업가능 자본은 약 4조원 수준으로 다른 초대형 IB에 준하는 영업자본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를 기반으로 증권시장 내 고성장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 출시 예정인 은행 ‘뉴 윈(New WON) बैं킹’과 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연결하는 슈퍼앱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S&T부문과 리테일 부문 목표도 제시했다. 박기웅 S&T부문 부사장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조성자로 성장해 2028년까지 운용자산

15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출범 초기에는 RP, CMA 등 국내 상품 기반 S&T 역할 재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기우 리테일 부문 부사장은 “기존 펀드슈퍼마켓 기능에 주식, 채권 중개가 가능한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고액자산가 3만명, 고객자산 43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 M&A나 유상증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 대표는 “2~3년 안에 2차 M&A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탁자산 등 우리투자증권이 단기적으로 확충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연내에 MTS를 공개할 예정이며, 초고액자산가를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프라이빗 बैं킹(PB) 영업의 거점 센터로 활용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점 영업 확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I·반도체 ETF 수익률 추락에도 ‘개미 순매수’

하락률 상위 20개 중 5개 AI·반도체 빅테크 실적 우려, AI 투자 의구심 영향

올들어 시장을 주도했던 인공지능(AI)·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역으로 AI·반도체 ETF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5일 코스콤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체 ETF 하락률 상위 20개 중 5개가 AI·반도체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가 37% 떨어지면서 1위를 기록했다. TIGER반도체TOP10레버리지는 35%가량 하락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23.91%), TIGERAI반도체핵심공정(-22.07%), SOL미국AI반도체칩메이커(-22.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금리인하를 시사했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아래에 그쳤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실적 우려

와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 출시되면서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급등한 AI 반도체 관련 ETF 등의 매수세에 가담했던 개미들은 이 같은 급락장에도 관련 ETF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들은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을 251억 원어치 사들였으며,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도 96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밖에도 KODEX 미국반도체MV(57억원), KODEX반도체(54억원), KODEX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52억원) 등을 매입했다. 한달로 기간을 넓혀도 개미들은 K

ODEX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688억원),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517억원),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373억원) 등을 사들이는 등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증권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은 올해 여름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장세로 넘어가면서 이미 주도권은 ‘금융·조선·기계·소비재’ 업종 주변 종목들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NH투자증권 ‘나무증권’

주식모으기 기능 개편

고객니즈 반영 서비스 점점 확대
거래 수수료 면제 등 이벤트 진행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인 ‘주식모으기’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 면제, 최강야구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식 모으기는 국내 및 해외주식을 고객이 원하는 일정한 주기와 수량만큼 설정해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주식은 100원부터, 해외주식은 최소 1000원부터 원하는 금액, 원하는 주기에 고객의 투자 계획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NH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중개형 ISA 계좌도 주식모으기가 가능하도록 거래 가능 계좌를 확대했고, 계좌별 모을 수 있는 종목을 필터링 형태로 제공하여 거래 편의성 또한 개선했다.

나무증권은 주식모으기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올해 12월 말까지 거래 수수료 면제 및 환전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나무증권 계좌를 보유한 기존·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국내·해외주식 온주(1주)·소수점 상관없이 주식 모으기(적립식) 서비스를 통해 주문하는 모든 종목에 대한 거래(매수) 시 무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외화 환전 시 기존 소수점 거래에만 적용되던 환전 우대 혜택을 온주(1주), 소수점 거래 시로 모두 확대 적용된다.

또한 NH투자증권이 메인스폰서십으로 참여 중인 최강야구 브랜드를 활용한 주식모으기 이벤트도 선보인다. 최강야구팀이 우승 시 100만원, 홈런 시 200만원이 적립되며, 주식모으기 약정 개수가 5000개 돌파시마다 50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허정윤 기자

삼성액티브운용, “배당성장액티브 ETF, ‘한국형 슈드’로 육성”

KoAct 액티브 ETF 1주년 간담회 1년만에 3360억 순자산 성장이뤄 3분기 밸류업 활용 액티브 ETF 출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5일 한국형 배당성장 상장지수펀드(ETF)를 육성하고 3분기 발표될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액티브 ETF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KoAct(코액트) 액티브 ETF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나올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액티브 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도 장기 연금형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은 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를 시작으로 ‘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 ‘KoAct 배당성장액티브’, ‘KoAct 글로벌기후테크액티브’, ‘KoAct 테크핵심소재공급망액티브’, ‘KoAct AI인프라액티브’ 등 6개 상품을 상장해 운용 중이다.

민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6개 액티브ETF를 투자자분들께 선보이며 순자산도 가장 빠르게 3360억원으로 성장해 전체 ETF운용사 26개 중 11위로 자리매김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액티브 ETF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KoAct’(Korea Active ETF)의 이름에 걸맞게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투자’를 실현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기존 출시 상품들 가운데 ‘KoAct 배당성장액티브’ ETF를 한국형 ‘슈드’(SCHD)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슈드’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린 기록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배당 성장형 ETF다.

슈드가 배당 외에도 추가로 현금흐름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감안해 투자 대상을 엄선하는 것처럼 KoAct 배당성장액티브 역시 국내 기업들 중 향후 배당성장 확대 등으로 배당규모가 늘어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효율성과 현금흐름면에서도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편입한다. 이 상품은 올해 출시된 주식형 액티브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순자산인 1700억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뉴스

삼성액티브운용은 올해 3분기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이를 활용한 액티브 ETF를 출시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상품 출시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의 밸류업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 패시브 상품보다 액티브 상품이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더 미룰 수 없어”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개정안
갈등·불법과업 조장”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고시
이정식 장관, 고시 계기로 현장방문
사업주·근로자 애로사항 경청
“결정체계 등 관련 논의 본격화”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도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

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

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산업부, 인니서 한국어·기술 교육으로 조선인력 양성

인니 세랑 ‘해외조선인력센터’ 개소
조선해양플랜트협-인니 노동부 협의
국내서 재교육 없이 즉시 현장 투입

정부와 조선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해 국내 현장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 인력을 양성해 국내 조선현장에 도입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후,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5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국내 조선산업은 현재 3~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3912만 CGT(8월2일 기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

/HD현대중공업

준)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산업체질과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

다만 그간의 장기 불황에 따른 생산인력 이탈로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난해 약 1만6000명의 생산인

력 공급을 확대한 바 있으나, 업계에선 양질의 외국인 숙련공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해외조선인력센터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우리 조선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현지에서 사전 시행해 국내에서 재교육 없이 조선현장에 즉시 투입해 안정적 우수인력 공급채널을 구축하고, 현지 국가와 산업협

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3개월간 1차로 30~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요구하는 용접기술을 교육하고, 조선업에 적합한 선급 용접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전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니 정부는 교육생 모집·교육·시설 제공 역할을 맡고, 한국 조선협회는 전문가 파견과 테스트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가면서 교육생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다 국가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사발전재단
우즈베크 노동법 개선 위해
근로감독 노하우 전수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 퇴치부(MoEPR)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과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3년간의 고용노동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김대환 기자

환경부, 일회용컵 회수함 통해 재활용 확대 박성택 “기업환경 불확실성 최소화 앞장”

(신임 산업1차관)

광화문~남대문 일대서 연말까지 시행

환경부가 광화문~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와 종로구는 길거리 회수함 관리를 맡는다.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을 확대

하는 것이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수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42개 커피전문점에는 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표식이 있는 일회용컵이 제공된다. 매장별로 일회용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수집 운반된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돼 리튬용 섬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된다.

/김대환 기자

“불필요 규제보다 불확실성이 더 나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사진)은 5일 “무엇보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산업부가 앞장 서자”고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도 나쁘지만, 어디로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규제는 더 나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주요 현안에는



산업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자”며 “기업활동과 성장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신임 차관은 보다 과감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며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내진시험 기반
성능검증 인증 취득

한국수력원자력이 내진시험 기반으로 원전 내진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한수원은 그동안 내진시험 시 외부 내진시험기관을 이용해 왔다.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중앙연구원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에 설치된 진동대를 활용해 원전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품의 내진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대환 기자

엔엠에프, 직영 중심 내실강화... 연 매출 500억 '폭풍성장'

15개 '이자카야 나무' 매장 운영 직영 관리로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10월 중 '나무 가든' 오픈 예정

'이자카야 나무'를 운영하는 ㈜엔엠에프가 기업의 규모보다 내실을 강화하는 직영 운영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엔엠에프는 2013년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이자카야 나무' 1호점을 오픈한 뒤 10년 남짓 만에 회사를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했다.

현재 서울에만 15개의 '이자카야 나무'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원 수만 350명(비정규직 포함) 수준이다.

대다수 요식업 기업이 그렇듯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엔엠에프의 매출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시국에 500석 대규모, 프라이빗한 룸형식의 '이자카야 나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알렸고, 동시에 품질 높은 메뉴를 개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세를 키웠다.

현재 ㈜엔엠에프는 '이자카야 나무' 등 F&B뿐 아니라 불링장, 마케팅업, 임대업, 금융투자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이자카야 나무는 본사 직영 운영체제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달 31일까지 여름휴가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자카야 나무 서울시청점 모습. /엔엠에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요식업 매장이 성공하면 대부분의 경영자는 프랜차이즈화를 꿈꾸기 마련이다. 기업의 외형을 빠른 시간 안에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자카야 나무'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가맹점 운영에 대한 뜻을 내비친 사람도 있었지만 이자카야 나무는 현재 15개의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창업 이후 매년 3~4개의 직영 매장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으며,

2026년까지 직영 매장을 2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객에게 꾸준히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충기(㈜엔엠에프 대표)는 직영 운영이 '이자카야 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밝혔다.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메뉴 및 서비스 매뉴얼을 표준화해 15개 직영점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능가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자카야 나무의 목표이자 기준이다.

또한 직영점으로 운영하면서 적재적소에 투자를 진행해 이미지를 고급화할 수 있었다. '이자카야 나무'의 시그니처는 70% 이상의 프라이빗 룸으로 구성된 개별 룸과 넓고 쾌적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500석 이상의 대규모 매장, 인상적인 고급 인테리어다. 프랜차이즈 점주들로서는 하기 힘든, 공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엔엠에프는 경영 노하우를 살려 10월 중 여의도 KBS 별관 부근에 200석 규모의 프리미엄 숙성 고깃집 '나무 가든'을 오픈한다. 아울러 '이자카야 나무'의 프리미엄 및 라이트 버전 매장을 각각 10개 이상 오픈할 계획이다.

라이트 버전은 프리미엄 이자카야인 '이자카야 나무'를 좀 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즐기게 하기 위해 규모나 가격, 서비스를 캐주얼하게 변형시킨 매장이다. 라이트 버전 역시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한다. 때문에 더욱 확실한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파격적인 기획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요식업뿐 아니라 대형 스포츠센터 건립, 숙박업이나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으로 진출하며 사업을 더욱 다각화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회사 규모에 걸맞는 본사 사옥을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이자카야 나무'는 8월 31일까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의 경품을, 1000명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여름휴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여름휴가 이벤트를 시작으로 시즌별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에게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외식기업으로 포지셔닝한다는 포부다.

㈜엔엠에프 관계자는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자카야 나무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드리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번 이벤트에는 1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1명), 250만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3명), 150만원 상당의 4인 골프 라운드권(6명), 10만원 식사권 등 1000명에게 1억원의 경품이 지급되며, 팽 없이 모든 참여자에게 시원한 생맥주가 두 잔씩 제공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광, 농가 경영 돕는다... 450t 햇과일 매입

11일까지 햇과일 대전 행사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 노력"

쿠광 '로켓프레시'가 수출이 어려운 국산 포도 등 햇과일 450톤을 사들인다. 위기에 처한 지방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전정부지 치솟은 국내 과일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쿠광이 대표적인 수출 과일인 포도 28톤을 포함, 450톤 규모의 햇과일을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쿠광에 따르면 과일 판매는 '햇과일

대전' 행사를 통해 이달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인머스켓, 캠벨, 거봉포도, 복숭아, 햇사과, 햇배 등 각종 제철 및 수출 품목 과일을 만나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인머스켓 600g을 9990원에, 캠벨 1kg을 1만1990원에, 거봉 600g을 923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초록 사과 1.5kg은 8990원, 영천 아삭한 복숭아 1.8kg은 9990원, 후무사자두 1kg은 5990원, 배 2kg은 1만9300원에 판

매된다.

쿠광 관계자는 "국내 농가에서 힘들어 키운 과일이 좋은 작황에도 제값에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맛 좋은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쿠광은 앞으로도 국내 농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농가 고민을 덜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마트가 5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휴가철 바캉스 물가 안정을 위한 8월 '가격파격' 행사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하이트진로 '이슬라이브' 티켓 판매

하이트진로는 '2024 이슬라이브 페스티벌' 공식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12시에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공식 판매되며, 가격은 2만원이다.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은 세계 유일 소주 뮤직페스티벌로 9월 7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진행된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흥행을 거둔 진로 골드 팝업스토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슬라이브 페스티벌도 테마파크형 뮤직페스티벌로 준비했다. ▲포도존 ▲체험존 ▲굿즈샵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공연은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안전한 이동을 위해 카카오톡 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20세 이상 성인(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입장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 "3분 요리' 알바비 300만원 드려요"

당근 협업... 소비자에 이색경험 제공

3분 동안 요리하고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색 아르바이트가 등장했다.

종합식품기업 오뚜기가 국내 최대 지역생활커뮤니티 '당근'과 손잡고 '오뚜기x당근 3분 알바'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브랜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분 요리알바' '3분 캠퍼스투어' 등 2가지 콘셉트로 기획됐다.

오뚜기의 대표 가정간편식 브랜드인 '오뚜기 3분 요리'에서 모티브를 얻은 '3분 알바'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제한 시간 3분 안에 오뚜기 3분 요리 제품과 다양한 식재료, 소스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3분 알바'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 동안 당근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지원할 수 있다. 당근 앱에서 '당근알바'를 검색하면 보이는 3분 알바 채용 공고 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알바생 5명 전원에게는 이색 알바 체험비 300만원을 당근머니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 26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3분요리 푸드트럭 캠퍼스 투어'는 자취 생활이 많고 빠르게 조리된 음식을 즐기는 대학생들을 겨냥한 이벤트이다. 페이지에 올라온 전국 대학 중 인기 투표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캠퍼스를 선별 후 오뚜기 3분 요리 제품을 캠퍼스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푸드트럭이 직접 찾아가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9일까지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60% 할인

SSG닷컴은 오는 9일까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할인 행사 '쇼핑 익스프레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자별 추천 카테고리를 선정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전, 패션, 스포츠·아웃도어, 뷰티·명품·리빙, 식품·아동·반려 순으로 진행된다.

'쓱- 특가 강력추천' 코너에서는 쓱

닷컴이 엄선한 여름 인기 상품을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 스톤헨지 팔찌, 토리버치 토트백, 로즈버드 여름 이너웨어, 루메나 탁상용 선풍기 등을 준비했다.

행사 기간 쓱닷컴은 모든 회원에게 개별 상품에 적용 가능한 7% 할인 쿠폰을 준다. 8% 장바구니 쿠폰도 선착순 제공한다. 행사카드로 SSG페이 결제 시 청구할인 혜택도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골든블루, 보냉백 패키지 출시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는 다가오는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한정판 '골든블루 보냉백 패키지(사진)'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보냉백 패키



지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세트',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세트' 2종으로 450ml '골든블루' 위스키 1병과 보냉백 1개로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아이들은 체험 클래스, 엄마는 힐링... “키캉스로 진정한 휴식”

(키즈+바캉스)

호텔업계, 휴가철 패키지 붐물

어린이·부모 분리, 단독휴식 보장
액티비티 전문 인력 등 따로 투입
아이들, 당근 수확 등 체험 클래스
부모들, 요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

‘키캉스(키즈+바캉스)’ 패키지 상품이 출시되는 흐름 속에서 육아에 지친 부모들을 위한 호텔 서비스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5월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맞춤형 키캉스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동시에 부모들만 따로 온전히 휴식을 원한다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및 여가 분야에서 가족 단위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직후 ‘키즈 펜션’, ‘키즈 풀빌라’ 검색량이 각각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85%, 57%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을 시작으로 호텔업계는 매년 여름 어린이를 겨냥한 다양한 키캉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서머 키즈 캠프 패키지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모습. /켄싱턴호텔 평창

에도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 대상의 객실 패키지 ‘JW 키즈 블리스’ 상품을 선보였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도 ‘키즈 체험 아트 클래스’ 등 어린이 중심의 휴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그러나 어린 자녀뿐 아니라 젊은 부모층도 온전한 휴식이 있는 휴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부모들의 요구를 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맘 웰니스 클래스’를 기획했다. 한화리조트 거제에서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거

제의 몽돌해변이 보이는 스튜디오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명상, 요가 등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인바디 측정을 위한 1:1 건강 상담, 모닝 요가, 힐링 명상, 수면 개선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한다.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심신의 안정을 위한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해당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서 맘 웰니스 클래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리조트 ‘맘 웰니스 클래스’에 참여한 젊은 엄마들이 요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랜드파크도 어린이들을 위한 키캉스 상품을 준비했지만, 그 속에는 부모의 온전한 쉼을 위한 배려가 녹아들어 있었다. 최근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 평창은 어린이 고객을 위한 ‘키즈&사이언스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오로지 아이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부모들은 키즈월드 내 카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카페에서는 부모들에게 무료 커피도 제공한다.

또한 켄싱턴호텔 평창은 키즈 체험

프로그램에 호텔 액티비티 전문 인력을 따로 투입해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부모의 휴식을 보장한다. 실제로 동물 먹이 주기, 당근 수확 등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담은 ‘프렌치 가든 키즈 캠프’에는 호텔 액티비티 전문가 ‘케니’가 함께 한다.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오모씨는 “아이도 즐기고 부모도 휴식할 수 있는 호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만 따라다니면 기쁨 쉬어도 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정관장 “편의점서 간편하게 에너지 충전”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2종 쓴 맛 줄여 부담 없이 섭취 가능 신제품으로 시장 라인업 강화

정관장이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사진)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편의점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는 인삼농축액 분말에 페퍼민트 맛을 더해 건강과 상쾌함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허브추출물을 담아 입 안에서 기분 좋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씹는 재미가 가득한 초소형 크런치 제형으로 식후는 물론 업무, 공부 중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에브리타임 맥스’는 인삼농축액 1500mg에 비타민B군, 판토텐산, 아미노산을 더한 복합 설계로 일상의 에너지를 끌어올린 제품이다. 레몬농축액을 더해 쓴 맛은 줄이고 달콤 쌉싸름한 맛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정관장은 최근 접근성이 우수한 편의점에서 건강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신제품 2종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편의점 카운터 매대도 검과 사망 대신 건강 식품으로 채워지는 중이다.



정관장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 ‘활기력’, ‘홍삼원’ 등을 선보이며 편의점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과 ‘활기력’은 각각 연간 100만개 이상이 편의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정관장의 대표 음료제품인 ‘홍삼원’은 병과 파우치 등 간편하고 휴대하기 좋은 형태로 2000년대 초반 편의점에 입점하여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정관장은 맛과 제형을 한층 다양화한 이번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 신제품 출시로 간편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취향과 입맛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종근당, 바르는 소염진통 ‘케렘겔’ 선택

국내 일반의약품 최초 마사지볼 적용

종근당이 기존 겔 파스 제제의 불편함을 극복한 차별화된 일반의약품을 선보인다. 종근당은 바르는 소염진통제 ‘케렘겔’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종근당에 따르면 ‘케렘겔’은 케토프로펜 3mg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관절염, 근육통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겔 유형으로 출시돼 통증 부위에 직접 도포하면 되는데, 국내 일반의약품 최초로 마사지볼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부에 겔을 바르고 스테인리스 마사지볼을 굴러주는 방식이다. 종근당은 케렘겔 마사지볼이 약물 흡수를 높이고 근육을 풀어주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케렘겔’ /종근당

다. 종근당은 케렘겔이 쉽고 편리하게 통증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케렘겔이 토출되는 부위와 마사지볼을 분리 설계해 제품 오염을 방지했다는 것이 종근당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무신사 29CM

‘뷰티풀 무브’ 콘텐츠

무신사 편집숍 ‘29CM’가 운동하는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무신사의 29CM가 스포츠 종목 및 운동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늘어난 것을 반영해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무신사에 따르면 29CM는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여성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 협업 콘텐츠 ‘뷰티풀 무브’를 선보인다.

뷰티풀 무브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인터뷰와 단독 혜택 기획전을 결합한 연재 콘텐츠다. /안재선 기자

LG생활건강, 라인프렌즈 컬래버 에디션 선택

‘코드 글로컬러’ 팩트·틴트 등 6종

LG생활건강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메이크업 브랜드 ‘코드 글로컬러’에서 ‘라인프렌즈 미니니 스페셜 에디션’ 6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은 ‘IPX’와 협업한 것으로, 프라이머·팩트·아이 프라이머·틴트·립세린·멜팅 스틱 등 6종류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코드 글로컬러 대표 제품인 ‘픽스온 프라이머’의 경우, 해당 제품이 인기 캐릭터 ‘레니니’가 스킨 피부를 유지



코드 글로컬러 ‘라인프렌즈 미니니 스페셜 에디션’ 6종. /LG생활건강

하는 비결이라는 재치 있는 이야기가 설정됐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색다른 재미를 느끼며 보송하고 매끈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학·취준생 멘토링 진행

‘여름에 뭐하니?’ 소통 행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래 바이오 인재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를 펼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여름에 뭐하니?’를 기획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여름에 뭐하니?’는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 인 에피스쿨’과 회사 설명회 ‘에피스와 랜선사(社)담’으로 구성됐고, 각각 오는 22일과 28일 진행된다.

‘멘토링 인 에피스쿨’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이 참가자들과 직접

만나 회사 및 직무 소개, 필요 역량, 취업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랩 투어, 임원 특강 등도 전개해 참가자들이 바이오 사업 현장에서 개발 프로세스를 더욱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피스와 랜선사(社)담’에서는 온라인으로 현직자들과 참가자들이 취업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멘토링 인 에피스쿨’은 오는 11일까지, ‘에피스와 랜선사(社)담’은 23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중부발전, 보령 머드축제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CEO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머드축제 기간에 행사장 내에 마련된 한국중부발전 홍보부스에서 진행됐다. 휴가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6가지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을 홍보했다. /한국중부발전



아우디 코리아, ‘아우디 써머투어 2024’ 성료

아우디 코리아가 ‘아우디 써머투어 2024’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우디 코리아는 이번 ‘아우디 써머투어 2024’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아우디 코리아는 2일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아우디 써머투어 FC 바이에른 팬미팅’에서 김민재, 토마스 뮐러, 콘라드 라이머 선수가 아우디 써머투어를 기념한 스페셜 데칼 차량을 공개했다. /아우디 코리아



한국타이어, 소외계층 어린이와 ‘희망나눔 캠프’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 피크닉 테마파크에서 진행한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2024 희망나눔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00여 명의 대전지역 아동보육 시설 및 장애인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타이어



신한금융그룹, 복지관에 우산 200개 전달

신한금융그룹이 서울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잇따른 폭염과 국지성 호우 대비를 위해 우산 200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지난달 26일 진행한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밀키트 제작 및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국지성 폭우가 내리자 지역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복지관에 많은 우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와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신한금융그룹



시몬스,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 기념 프로모션

시몬스는 최근 뷰티레스트 컬렉션 런칭 100주년을 1년 앞두고 국내 제조·생산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VANADIUM)’을 적용한 ‘뷰티레스트 신제품’을 선보였다. 소비자들은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통해 강력해진 내구성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뷰티레스트 신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시몬스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로 올림픽 경기 생중계

요트경기서 모바일 생중계 지원 선수 요트·촬영 지점 등에 설치 기지국 보트 통해 실시간 전송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 요트 경기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를 활용한 모바일 생중계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방송 서비스(OBS) 등 다양한 올림픽 파트너들과 협력해 요트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다 가까이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스포츠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4 파리 올림픽 요트 경기는 7월 28일(현지 시간)부터 8월 8일까지 프랑스 남부의 항구도시 마르세유에서 스키프, 딩기, 멀티힐, 윈드서핑, 카이트보딩의 다섯 가지 선박 종목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요트 경기 남자 스키프에 출전한 로버트 딕슨(아일랜드), 손 와딜로브(아일랜드)선수의 요트에 ‘갤럭시 S24 울트라’가 설치돼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파도를 타는 요트 종목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전 세계 올림픽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선수들의 요트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스키프, 딩기, 멀티힐 종목의 경우 요트 형태 별 최적의 촬영 지점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설치했다. 요트에 설치가 어려운 윈드서핑과 카이트보딩 종목의 경우는 선수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 모듈과 연결돼

데이터 송수신 역할을 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수 어깨에 부착해 경기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현장 중계에 활용된 갤럭시 S24 울트라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OIS)을 통해 거센 파도와 바람, 높은 온도 등에서도 흔들림 없는 선명한 고화질 영상을 더 넓은 각도로 촬영해준다.

촬영된 경기 영상은 바다 위에 설치된 기지국 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끊김 없이 전송된다. 삼성전자는 초고화질 영상이 원활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등 혁신 모바일 기술을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마치 선수들과 함께 실제 경기에 참여한 듯 실감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metroseoul.co.kr



현정은 회장이 지난달 31일 종로구 연지동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신입사원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3주간 교육을 마친 50여 명의 신입사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그룹

현정은 “긍정의 힘 ‘현대정신’” 강조

〈현대그룹 회장〉

신입사원 교육수료식 참석해 격려 6607명 전 임직원들에 보양식 선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신입사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여름철 보양식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보내는 등 ‘감성 경영’을 펼쳤다.

5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달 31일 종로구 연지동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신입사원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3주간 교육을 마친 50여 명의 신입사원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현 회장은 신입사원들에게 사원증을 걸어주며 “현대그룹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초(超) 긍정적 사고를 의미하는 ‘원영적 사고’라는 MZ세

대 유행어를 소개하며 “긍정의 힘은 ‘현대정신’의 핵심 가치로 이제는 여러분의 신선한 감각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영적 사고’는 인기 걸그룹 IV E의 멤버 장원영의 초 긍정적 사고를 일컫는 신조어다.

현 회장은 말복을 앞두고 국내 5317명, 해외 1290명 등 6607명 전 임직원들에게 여름철 보양식 선물을 보냈다.

현 회장은 선물에 동봉한 편지에서 “현대엘리베이터 40주년, 현대무브스의 글로벌 성과 확대 등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현대그룹은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해외 랜드마크서 함께하는 신라면”

농심, ‘글로벌 사진 공모전’ 개최

농심은 전 세계 다양한 랜드마크에서 즐기는 신라면을 주제로 ‘글로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심 라면의 위상과 세계인의 한 끼 식사로 자리잡은 대중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 응모는 국적에 무관하게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을 제외한 해외 현지 분위기와 문화를 담은 랜드마크에서 신라면과 함께하는 장면을 촬영해 응모하

면된다. 사진에 신라면 브랜드를 반드시 노출해야하며, 해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제품을 함께 활용해도 된다.

공모 마감은 오는 10월 6일이다. 이후 농심은 심사를 거쳐 10월 25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등 1명, 2등 2명, 3등 10명, 입상 20명으로 총 33명을 선정하며, 상금 규모는 1등 상금 500만원을 포함해 총 1400만원이다. 농심은 글로벌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SNS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기부 참여자 1만명 넘어선다

아름다운가게 기부 캠페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의 누적 참여 파트너 수가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아름다운가게 기부 캠페인은 스타벅스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비대면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2021년 처음 시작한 캠페인으로 파트너들이 직접 물품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나눔을 현재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참여 파트너는 누적 9500명을 돌파했으며, 이러한 추이로 봤을 때 올 연말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아름다운가게가 다양

한 파트너사와 진행 중인 여러 캠페인 중에서도 이례적인 큰 규모로 손꼽힌다.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스타벅스매장과 아름다운가게의 공통점을 활용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캠페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스타벅스이기에 가능한 차별화된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파트너들이 직접 각 지역의 아름다운가게를 방문해 기부하거나 물리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택배 발송을 활용하며 적극적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파트너들의 활발한 기부 활동은 안 쓰는 물건을 나누고 다시 쓰는 자원 재순환 실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트너들이 기부한 아이템은 의류, 도서, 디지털 기기 등 5만1000여 개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그룹 희망나눔재단, AI 윤리 관심 확대

‘스마트 AI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지난 3일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제1회 스마트 인공지능(AI)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대상 올바른 AI 사용에 대한 관심 확대와 AI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돼 ‘올바르고 안전한 AI 윤리’ ‘사람이 행복한지는 AI 세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심사를 통해 총 25개의 우수작을 선정했으며, 이 중 5명에게 기관장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상 상주현(브랜섬홀 아시아 국제학교) 등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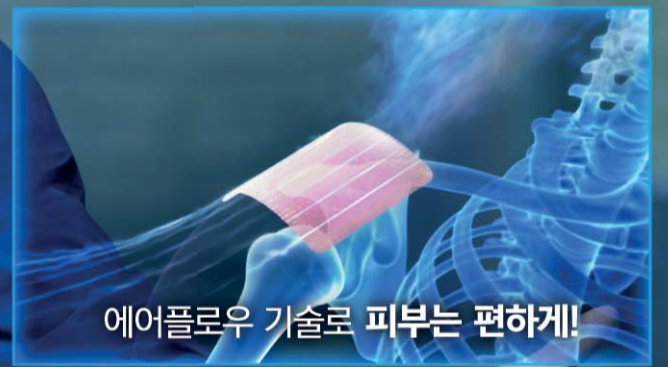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번역원 장 전수용
- ◆ 보건복지부 ◇과장급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한숙
- ◆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언론담당관 김용환

부음

- ▲ 김성태(향년 81세)씨 별세, 정영숙씨 남편상, 김재연·김선희·김상미씨 부친상, 강희종(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처 책임전문위원)씨 장인상 = 5일 오전 7시30분,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7일 오전 6시, 장지 부산 추모공원. 051-610-9678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일본 기업의 수명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일본은 세계에서 장수 국가로 유명한데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장수기업이 많이 있다. 일본의 '100년 경영연구 기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만 6000 개 사에 달하고 세계 100년 이상 기업 중 약 40%가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194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 된 것이다. 1875년 창업 이후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도시바는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도시바의 상장폐지 소식을 접하고 문득 예전에 본 일본 기업의 수명에 관한 연구가 떠올랐다.

일전에 일본 기업의 수명을 측정하는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부분 기업이 약 30년을 전후로 상장폐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명쾌한 결

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실 해당 논문을 읽은 것이 꽤 오래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간만으로 일본 기업의 수명을 30년이라고 내린 결론은 설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1949년 문을 열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기보다는 일본 증권거래소의 평균 상장 기간이 약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00년 이상 된 기업의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 수명으로 따지면 30년을 넘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기

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잘 알려진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대기업을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시바와 같이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자리를 잡고 성장한 재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벌은 미군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운이 좋게 이를 회했거나, 족벌이 배제되고 소유가 분산된 전문기업으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그룹은 업력이 이미 150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바는 148년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등장해서 성장한 소니와 같은 기업도 6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만 보더라도 일본 기업의 수명은 적어도 60년 이상이며, 장수기업은 150년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수명은 100년을 넘는다. 역시 일본은 사람도, 기업도 장수국임은 분명한 것 같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밸류업 '여부'도 공시가 필요하다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요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자율성에 맡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힘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는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글로벌 증시들이 급락하면서 상반기에 밸류업 효과로 올려둔 코스피 상승분도 며칠 만에 반납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일부 기업들은 '혈값 합병' 등 주주환원 역행 기조를 보이기도 한다. 사실상 '밸류업' 흐름에 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더라도 일부 주주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증권맨은 "밸류업 참여 여부 자체에 대한 공시라도 확정시켜

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내지 않더라도 기준 기간 내 할 계획이 없다는 안내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상당히 공감했다. 밸류업이 중장기 정책이라고는 하나 초반부터 화력을 잃으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11개에 불과하다. 본 공시를 낸 기업을 추리면 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6개사로 다시 좁혀진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을 확정된 지역 두 달이 지났지만 밸류업 공시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로 꼽히는 금융업종이 그나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당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을 때, 시장에서

요구했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나 세제 지원 등이 모두 빠지면서 실효성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촉진세제 방안이 '밸류업' 동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지수다. 세제 인센티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8월 내 입법예고 후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밸류업'의 큰 손으로 꼽혔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BUY KOREA'에서 'BYE KOREA'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리안하 기대감에 부풀었던 글로벌 증시는 어느새 'R(경기침체)의 공포'에 압도되고 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동반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6일 (금 7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바쁘게 움직이자. 48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자. 60년생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움직여라. 72년생 수영선수가 물을 두려워한다. 84년생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줘라.



37년생 싫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4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다. 61년생 오늘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다. 73년생 이직보다는 부족한 공부를 더 해라. 85년생 아침부터 행운의 좋은 일이 있겠다.



3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50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62년생 부단한 노력이 꾸준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74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뺀 것이. 86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39년생 처음이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다. 51년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63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5년생 아름다운 시를 좋아한다고 다들 시인이 되지는 않는다. 87년생 세월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니 잡고 가라.



40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52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지지 않게 한다. 64년생 오늘은 불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상생생. 76년생 근거 없는 구설이 발생할 수 있다. 8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4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53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65년생 물다리로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7년생 가족의 평화나나의 성공을 이끄는 지팡이. 89년생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며 행동.



42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다치게 한다. 5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6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결명심. 78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하고 높이 뛰자. 90년생 물이 멀리 가니 마유도 멀어진다.



43년생 분하고 슬퍼도 이웃 탓이 아니고 내 탓. 55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67년생 진실을 알아도 떠들지 말고 두고 보면서 신중. 79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내라. 91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주변에서 원망한다.



44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6년생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마다 다르다. 68년생 말조심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80년생 남의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라. 92년생 그동안 닦아온 건강한 신체에서 보석비가 내린다.



45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57년생 에디슨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69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추억이 아니다. 8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93년생 인색보다는 돈을 사랑으로 대해보라.



46년생 손쉽게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58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0년생 진주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 결실을. 82년생 실력을 키우면 기회는 오기 마련이니 세월이 헛되지 마라. 94년생 고가 발생할 수 있을 시 계단 조심.



47년생 맑은 날 외출도 기쁨이다. 5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조상님 은혜. 7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자. 83년생 번거로운 일이 많으나 해낸다. 95년생 사람은 다양한 능력과 번뇌의 속성이 있으니 나만 도태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김상회의四季 풍수의 대가는 어디에(2)

그리고는 총각에게 쪽지를 하나 적어주고는 곧바로 수원성에 가서 수문장에게 이 서찰을 보이라 했다. 총각은 시키는 대로 했다. 수문장은 임금의 어명이 적힌 내용을 보니 쌀 3백석을 내주고 총각의 어머니 장례식을 치러주라는 내용이였다. 숙종은 갈처사가 사는 집 앞에 다다랐다. 임금은 신분을 속이고 시냇가에 뒷자리를 쓰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꾸짖었다. 갈처사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인데 거기는 관이 들어가기도 전에 쌀 삼백석이 생기는 자리란 말이오!" 했다.

이에 놀란 숙종이 "아니 그렇게 터를 잘 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외딴 곳에 혼자 사시오?" 갈처사 왈, "저 아래 부자로 사는 놈들은 다 사기꾼에 도둑질에다 공금을 잠깐처럼 쓰고 사니 기와집이 다 무슨 소용이오? 그래도 내가 사는 곳은 나중에 임금이 다녀갈 곳이오!" 하는 것이다. 숙종은 또 놀라며 "그럼 임금은 언제쯤 여기를 다녀간다는 것이오?" 라고 물었다. 그러자 갈처사는 몇 년 전에 풀어 놓은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 먼저 묻은 종이를 들고나와 풀어보는데 깜짝 놀라며 오늘이 바로 그날로 임금을 보고는 바로 앞드려 절을 했다.

이에 숙종은 갈처사를 칭찬을 하며 자신의 뒷자리를 미리 봐달라고 부탁을 한다. 거기가 바로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오릉이다. 그 다섯 능 중에 명릉明陵이 숙종의 능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사찰인 월광사의 위치도 서오릉과 인접한 덕양구 용두동이다. 서오릉과는 마주 보는데 필자가 이곳을 월광사 터로 정했을 때도 풍수적 비결을 참고했다. 요즘은 하도 땅을 많이 파헤치고 통신탑이나 철탑이 많아 지기가 흐트러지니 천하제일 지관이라도 풍수의 법칙들이 깨지는 이런저런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7		4	3		2	
5				3				
		3		5				
	7			8				
		5				8		
				7			4	
				2		9		
				1				3
8		2	9			5	6	

	5	4		7				2
	2	3						
				2				4
	7			3				9
				1	4	2		
3				6				5
						5		8
	8					6		
								2
	3			2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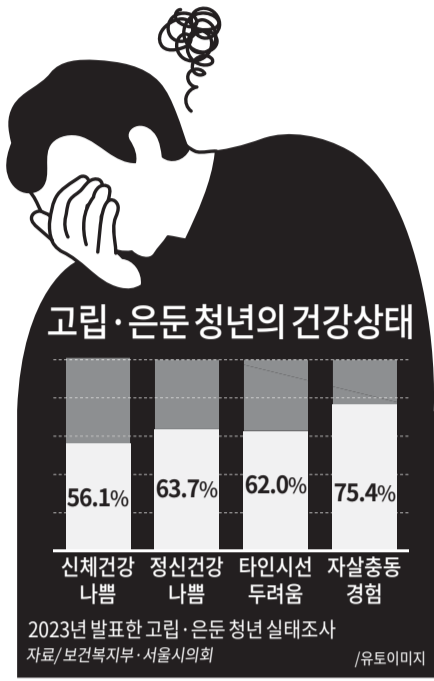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약 13만명 도움 필요한 청년 발굴·지원해야

지원받는 고립청년 0.43% 불과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확률 높아
기관 존재 알리고 연계 강화해야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이 약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립 생활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하루빨리 발굴, 중·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47호에 따르면, 시에서 추산한 고립·은둔 청년은 최대 12만9852명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이는 557명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고립·은둔 청년의 0.43%선이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고립 척도 점수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례별로 나눠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활동형에는 직무훈련·일 경험 프로그램·자립생



활을, 활동제한형에는 자기성장을, 은둔형에는 기초 생활 밀착지원 프로그램과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윤지민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지원을 받은 청년이 0.43%라는 것은 아직까지 수많은 고립·은둔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을 하루빨리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은 다양한

원인에 따른 사회활동 실패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며 "더 나아가 우울·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고, 질병 발병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도 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은둔 경험에 있는 청년 중 신체건강,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6.1%, 63.7%였다. 미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은 66.3%였고, 타인의 시선 및 대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은 각각 62%와 47.8%로 나타나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또 고립·은둔 청년의 75.4%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26.7%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윤지민 예산분석관은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발굴하는 부분"이라며 "지원하는 기관의 존재를 알리는 것과 함께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중대 부실시공 발생시 즉시 재시공

공공건설 원도급사 '책임시공' 의무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으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육청, 8일 '제2회 검정고시' 시행

초·중·고졸 검정고시... 5097명 응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 서울시내 12개 고사장에서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61명, 중졸 898명, 고졸 3838명이 응시한다.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40명, 재소자는 48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선린중(1개교)이며, 중졸은 대영중·월곡중(2개

교), 고졸은 중앙중·신복중·서운중·송파중·광남중·공릉중(6개교)이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날 오전 8시 4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시 제출한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4주간 교육

오늘 필리핀서 입국 후 특화교육
오는 9월 3일부터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한다고 5일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입국** 2024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 국내 교육** 8월 6일~9월 2일 특화교육 실시
기본교육 16시간+직무교육 144시간
- 서비스 제공** 9월 3일 서비스 제공 시작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자료/서울시

공동숙소는 역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들은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7개월간 살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달 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 올 8월 중 가사관리사를 매칭해 오는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수원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연다

미래 특화산업으로 반도체 육성

수원특례시가 반도체 분야를 미래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해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팹트론, 레조나 코리아 등 내로라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 등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및 부품, 기술 솔루션 등 품목별 전시가 이뤄진다.

수원시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행사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최신 동향과 기술을 알아보는 세미나와 국제포럼, 구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전남 영광·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영광 칠해, 신안 후광 '조건부 허가'
1.3GW 규모 추가... 총 17.3GW 허가

전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 300차 전기위원회에서 도가 찬성의견을 제출한 영광 칠해1·2,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이 신청한 영광칠해1·2는 발전용량이 각각 510MW로 합계 1천20M

W다. 전남개발공사가 신청한 신안 후광은 발전용량 323MW 규모로 사업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기존에 허가받은 16GW 규모에 이번 1.3GW 규모를 더해 총 17.3GW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전남도 해상풍력 잠재량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386.5GW)의 32%인 125GW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건부 허가는 2031년 12월 계통보강 이후 연계 가능

하다는 한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계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산업부가 지난 5월 추가접속을 제한하는 계통관리변전소를 지정함에 따라 접속 제한 시기인 2031년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7월 26일 여수·고흥·해남·영광·신안 5개 시군과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주도 신규 345kV 변전소 건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0 해질 / 19:35

8월 6일 (화) 음력 : 7월 3일

수도권 날씨 27~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5/33, 동두천 26/33, 가평 25/33, 파주 25/33, 서울 27/33, 양평 26/33, 인천 27/32, 수원 27/33, 용인 27/33, 평택 26/3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블링컨 "이란, 이르면 5일 보복 가능 경고" /사진 뉴시스
▲예멘 정부, 구호기금 부족으로 "보건 의료 위기" 압박 예고

▲바이든 대통령, 5일 NSC 긴급 소집... "중동 사태 논의"
▲EU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당선 "인정할 수 없어"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홍콩 폭염으로 지난 10년간 1677명 '추가 사망'
▲재외동포청장 "히로시마 아픔 잊지 않고 후손에 모든 지원" /사진 뉴시스



호텔업계
키캉스 패키지로
진정한 휴식 선택
L2



Life

삼성전자
'S24 울트라'로
올림픽 생중계
L4



탄소 줄이고, 안전 최우선으로... 행복한 미래 위한 '파트너'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현대위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위아는 현대모비스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공장기계와 방산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위아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 및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든다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2045년 탄소 중립 목표 세워

현대위아는 특히 환경 부문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했다. 오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구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45% 정도를 감축하고, 오는 2040년까지 8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RE 100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했다.

현대위아는 실제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1공장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의왕연구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현대위아는 2026년까지 총 83억원 이상을 투자해 연간 5454Mwh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외법인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계약(PPA)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인도법인의 경우 지난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전체 전력 대비 28%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현대위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비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을 감축하는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국내외를 모두 합한 현대위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5만3414t CO2eq였으나 2022년에는 30만8671tCO2eq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8만2817tCO2eq으로 매년 감소 중이다. 비재생 에너지의 사용량 또한 2021년 4837TJ에서 지난해 3985TJ로 감축했다. 이는 매출과 생산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사업장 및 협력업체 안전까지 챙겨

현대위아는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위아는 올해 초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1공장 미디어 홀에서 사업장 내 안전을 위해 '노사 합동



1 현대위아 직원 및 가족들이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일대에서 플로깅 행사를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 현대위아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경남 창원시 본사에서 지역 사회복지 기관 20 곳에 신물할 드림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 현대위아가 지난해 10월 25일 광주 월곡중학교를 초록학교로 선정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위아

탄소배출 감축 '중장기 로드맵' 구축 매년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줄여

안전수칙 제정 등 사업장 안전 강화 동반성장펀드 운영, 협력사 성장지원

복지시설에 자동차 기증 '드림카' 학교 숲 꾸미는 '초록학교' 등 운영

ESG 평가 기관서 최고수준 평가받아 지속가능한 회사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안전위크숍'을 개최했다.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한 이 자리에서 현대위아는 '노사 공동 안전선언문'을 발표하고 사업장 내 안전 강화 활동을 더욱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현대위아는 현재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방침' 아래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허가 이행 ▲정비, 청소 중 안전표지판 부착 ▲작업장 소화기 비치 ▲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현대위아는 협력업체의 성장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현대위아는 우선 협력사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를 올해 확대 운영한다. 동반성장펀드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78개사를 대상으로 운용했으며 올해는 수혜 협력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협력사의 안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협력사의 판로 지원에도 나선다. 협력사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종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와 체류비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 위해 사회공헌 강화

현대위아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에 자동차를 기증하는 '현대위아 드림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전달한 드림카는 총 170에 달한다. 현대위아는 또한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숲을 꾸미는 '현대위아 초록학교'를 진행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스텝'을 열어 미래 산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대위아는 올해에도 드림카와 초록학교, 모빌리티 스텝을 확대 진행하는 것은 물론 창원시 내 S-BRT 다기능쉼터 등을 설치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본사에서 농산물 장터 '이음마켓'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음마켓'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시

장이라는 의미다. 현대위아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음마켓을 열었다.

현대위아는 이러한 ESG 경영 노력에 국내 ESG 평가기관의 우수한 평가가 이어졌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10월 한국ESG기준원(KCGS)의 평가에서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유일하게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환경재단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으로 선정,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현대위아는 해외 ESG 평가 기관에서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위아는 최근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75개국, 10만여 개의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현대위아가 획득한 골드 등급은 상위 5% 이내 기업에게만 부여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가 주관하는 '2023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도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위아는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라고 보고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ESG 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양현준 교체·권혁규 결장' 셀틱, 리그 개막전 대승
▲김하성, 5경기 연속 무안타...배지환은 시즌 첫 장타 '광' /사진 뉴스스

▲서울 20~23세 청년, '문화패스' 20만 원 신청하세요
▲D-4일 '대전 0시 축제'...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홀인원 작성한 안나린, LPGA 포틀랜드 클래식 준우승 /사진 뉴스스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 첫 내한...정명훈·김선욱과